



막막한 어둠, 고통의 기억 청년작가들 보듬다

임주언·현승의·현아선 3인 4:3 다룬 '잠겨진 기억' 전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한림 금능 '대안공간 금능집'



현승의 '없는 낙원'.

봄꽃 앞다투어 피어나는 4월. 그 화려함 뒤에 자리한 비극에 제주 청년작가들이 눈길을 뒀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바닷가의 오래된 민가를 활용해 조성된 대안공간 금능집에서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제주 4:3 소재 작품을 풀어내는 '잠겨진 기억'전이 진행된다.

이번 전시엔 20대~30대 초반 나이의 임주언·현승의·현아선 작가가 참여한다. 서울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서귀포시 이종섭미술관장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선발돼 고향에 머물고 있는 현승의 작가가 4:3을 잊지 않으려는 젊은 작가들을 모아 전시를 마련했다. 임주언 작가는 제주

대 미술학과 재학생이다. 현승의 작가와 자매 사이인 현아선 작가는 앞서 흑백 연필화에 제주 해녀들의 생애를 담은 그래픽 노블 '다이버(DIVER)'를 펴낸 일이 있다. 이들 세 명의 작가는 4:3을 체험한 할머니, 할아버지 등을 통해 그 날의 비극에 일찍이 관심을 가졌다. 금능집에서 열리는 첫 전시인 '잠겨진 기

억'은 4:3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어떻게 그 기억을 이어받고자 하는지,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준비했다. 평면과 영상 작품 등 25점을 선보인다.

임주언 작가는 할머니에게 들었던 참상을 이미지로 재구성한 작품을 내놓는다. 종이에 연필로 그린 '잠 못

드는 밤' 등을 볼 수 있다. 현승의 작가는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4:3이 망각되어 가는 현실을 표현했다. 그는 4:3학살터였던 제주국제공항이 음울한 낯빛으로 등장하는 '없는 낙원' 등을 출품한다. 현아선 작가는 '11명 그리고 검은 연기' 등 제주시 구좌읍 다량리의 사연을 다뤘다. 1992년 다량위굴에서 11구의 시신이 발굴되면서 4:3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새겨주었던 곳이다.

금능집 운영자인 현승의 작가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비극.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 이야기할 때의 억압함에 대해 우리는 오래도록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현재의 시점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각자의 방식으로 4:3의 기억을 반추해보기로 했다"는 문장으로 전시 의도를 설명했다.

관람 가능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시장 주소는 한림읍 금능9길 17. 전선히기자

서귀포 공연장 하반기 대관 신청 몰려

코로나 여파 행사 연기에 서귀포예당 24건으로 늘어 아트센터 도내팀 대관 증가

제주도내 3개 공공 공연장이 최근 실시한 하반기(7~12월) 정기대관 접수 결과 서귀포 지역 공연장 대관 경쟁률이 작년부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도내 접수 건수가 소폭 증

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난달 18~27일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을 대상으로 정기대관 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대·소극장과 전시실을 합쳐 2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6건보다 8건이 증가했다. 서귀포시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예당 등 우선대관은 21건으로 이것까지 합치면 대관 건수는 45건에 달한다. 작년엔 우선대관이 12건이었는데 서귀포예당 등 2~4월 공연이 연기되면서 하반기에 일정을 추

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이번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대관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관 규정에 따라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는 공연 취소나 연기에 의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예회관은 지난달 18~31일 대·소극장에 한해 정기대관 접수에 나섰다. 지원서 접수 결과 정기대관은 대극장

96건, 소극장 28건이었다. 전년도 대극장 97건, 소극장 26건과 큰 차이는 없었다. 우선대관은 대극장이 6건으로 작년 4건보다 소폭 늘었다.

제주아트센터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정기대관 접수 현황에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달 2~13일 신청서를 받았더니 공연 19건, 전시 2건이 접수됐다. 다만 공연의 경우 작년과 접수 건수가 동일했지만 도내 18건으로 지난해 11건보다 그 수가 많아졌다. 제주아트센터는 정기대관 외에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를 포함 우선대관이 33건으로 다른 공연장에 비해 많았다.

전선히기자 sunny@ihalla.com

이사장 재추천 요구에 이사 선임도 실종

제주문예재단 비상임 이사 같은 시기 공모 추천했지만 임명 여부 아직까지 잠잠

제주도지사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선임 이사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같은 시기에 추천된 비상임 이사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재단은 지난 2월 전국 공모를 통해 상임 상근직인 이사장, 비상임 이사 1명을 모집했다. 그 결과 비상임 이사 공모에 제주에서만 6명이 지원서를 냈고 별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 지난달 3일 이사장 후보와 함께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했다.

제주도가 재추천 요구 대상인 이사장 후보로만 특정했다는 점에서 문예

재단 내부에선 비상임 이사의 경우 앞서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일 현재까지 제주도지사는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임명일로부터 임기 2년인 이사장과 달리 결원에 따라 선발하는 비상임이사는 2021년 1월 19일까지 활동(연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윤진남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함에 따라 이사장 재

추천에 따른 절차도 잠시 중단한 상태"라며 "비상임 이사 임명은 이사장 선임에 맞춰 이루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사장 공석 중에도 문예재단의 각종 업무를 의결하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왔다는 점에서 후보 추천까지 마친 이사장까지 오래도록 빈 자리가 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빠르면 다음 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등 이사장 선발을 위한 준비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선히기자

詩(시)로 읽는 4:3 (53)

칠오름의 진실은

박효찬

우리 동창은 칠오름에 집이 없는 데 산다
눈이 쌓인 겨울엔 간장 하나에 밥을 먹어야하고
4월이 되면 붉게 물든 고냉이술 언덕에서 함께 온다
고갈모자를 쓴 칠오름에서 신들의 축제에 지식인을 부르고 역적을 부른다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 봉아름으로
목이 마르면 축창으로 붉은 동백꽃을 꺾었다
무자년 4월
혈흔도 없이 사라져버린 무수한 사람들
칠오름 자연동굴 속 이야기는 흔적이 없다

일제강점기 시절, 봉개동 일대는 일본군 96사단 예하의 293연대본부가 주둔해 있었다. 명도암뿐만 아니라 주변 오름은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대규모 경도진지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였다. 이곳 역시 4:3 피난처가 되었다. 명도암에 연대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명도암오름과 칠오름, 열안오름, 노리오름 등에도 경도동굴들을 볼 수 있다. 고냉이술은 칠오름의 북동쪽에 동·서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곳자왓 지역이다. 고냉이술에 진지동굴이 남아있다. 고냉이술 경도의 길이는 70여m 정도이며 내부에 크고 작은 방 3곳과 통로 2곳이 만들어져 있다. 제주도를 피의 공포 속으로 내몰았던 4:3 당시 곳자왓 역시 토벌대를 피해 숨어든 주민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했다. 오랜 세월 버려진 땅이었다. 먹을 것 귀하던 시절, 도토리며 양하(襄荷) 같은 구황식물을 아낌없이 선물했다. 고냉이술굴은 용암종유와 용암유석 등 동굴 생물들이 일부 남아 있는 용암동굴이며, 일제강점기때 일본군이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를 정비하면서 일부 훼손 되었다. 역시 피난처였다. 칠오름을 칠오름이라고도 한다. 침이 많은데서 칠오름 또는 칠오름으로 불려온다. 다른 하나는, 명도암 남쪽에서 내려오는 오름 가운데 일곱 번째 오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자 표기도 칠봉(七峰) 또는 칠악(七岳)으로 돼 있다. 맨끝의 칠오름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열돼 있다는 풍수설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김진용(金晉鎔)의 은거지로 유서가 깊은 명도암은 봉개동에서도 2km쯤 올라간 중산간에 형제봉·열안지오름·칠오름으로 둘러싸인 한갓진 마을이다. 1965년 10월 탄신 6회갑 기념으로 이승녕(李崇寧)의 명문으로 된 '명도암김진용선생유허비(明道庵金晉鎔先生遺墟碑)'가 명도암오름에 건립되었다. 아늑한 분위기를 이루며 병풍 구실을 하는 이분오름들 가운데 칠오름은 마을의 북동쪽, 변영로에서 올라오는 간이포장도로 동쪽에 길게 솟아있는 능선을 흘러고 누워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코로나에 지친 당신께 책을 선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4월 한 달간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서비스에 이어 종이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행사를 벌인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교보문고와 협력해 개설한 특별 누리집인 '책쉼터(book.dkyobobook.co.kr)'를 방문하면 4월 한 달 동안 1인당 최대 2권까지 전자책과 소리책을 무료로

대여한다. 준비된 80만 권의 이용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에 마감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종이책을 선물할 수 있다. 이달 10일까지 매일 500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0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책 선물을 원하는 신청자는 출판진흥원 누리집(www.kpipa.or.kr)에 접속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종이책을 선물하고 싶은 이에게 응원의 문구를 남기면 책과 함께 집까지 배송해준다. 전선히기자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